

企劃論文

복식 장만과 관리를 통한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한국복식사 전공
mjlee815@aks.ac.kr

- I. 머리말
- II. 복식의 장만
- III. 복식의 관리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이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의생활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복식문화는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례의』 등과 같은 국가 전례서를 비롯하여 사대부의 『문집』, 그리고 출토유물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복식 관련 자료는 신분과 의례에 따라 복식이 어떻게 달랐으며,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 법제화된 복식제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현전하는 개인 문집에 단편적이거나 수록되어 있는 복식 관련 자료는 개인의 복식관은 물론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여기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실제 착용하였던 출토유물은 복식의 구체적인 형태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복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신분 또는 의례에 따라 착용한 복식은 무엇이며, 당시대인들의 복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복식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복식문화를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의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 즉 복식을 장만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식을 장만하였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실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의생활 문화를 밝히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희춘(1513-1577)은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1일부터 1577년(선조 10) 5월 13일까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소소하고 다양한 일들을 『미암일기』에 기록해놓고 있다. ‘일기’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특성을 갖는다.¹⁾ 따라서 일상에

1)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정신문화연구』 19권 4호

서 이루어지는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일기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치 또한 높다.

『미암일기』 역시 학계의 주목을 받고 국문학, 역사학, 사회학, 한문학, 지리학, 음식사 등 각 분야에서 16세기 양반의 일상생활을 밝히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²⁾ 복식 분야에서는 조선 중기 복식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한 연구가 있으며³⁾, 『미암일기』를 통해 16세기 사대부의 복식을 밝히고자 한 연구⁴⁾도 있다. 그러나 『미암일기』의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조선 중기 복식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세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6세기 사대부 남성이 기록한 『미암일기』 속 복식의 장만과 관리를 통해 10여 년간 벌어진 조선 중기 한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문화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II. 복식의 장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식은 ‘사람의 몸에 걸치는 사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식을 연구하는 방향 역시 형태 및 용도 위주의 고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상의 매일을 기록하고 있는 『미암일기』는 조선 중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미암일기』를 통해 복식을 장만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떠한 양상으로 복식을 장만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6), 6쪽.

2) 송재용, 『『미암일기』에 나타난 점복과 조짐, 꿈과 해몽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제25집(2007);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관료의 사화와 그에 따른 수입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1995); 박미해, 「16세기 부권과 부권의 존재 양식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과 송덕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2002); 정치영, 「일기를 이용한 조선 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역사민속학』 제26호(2006).

3) 이민주, 『眉巖日記』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제23호(2006).

4) 윤소정,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복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1. 복식 장만의 주체

16세기 사대부 ‘남성’들은 근친, 수학, 관직, 유배 등의 이유로 자주 집을 비우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정생활의 주체는 여성이며, 의식주를 비롯한 집안의 안팎을 거의 다 여성이 주관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⁵⁾ 그러나 『미암일기』를 보면, 유희춘이 바쁜 관직생활을 보내면서도 필요한 복식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였으며, 부인이나 첩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해주는 등 복식을 장만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는 한 집안의 의생활이 여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한 집안의 복식을 장만한 주체를 가장인 유희춘과 그의 부인 송덕봉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희춘

미암 유희춘의 일기는 1567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12일 도사 민충원(閔忠元)을 통해 ‘현사(賢士)를 뽑는 단자’ 안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이유는 학문이 해박하다는 것이었다. 이틀 후 이조의 서리로부터 “유희춘, 노수신, 김난상을 방면해주고 직첩도 돌려줄 것이며, 경연관으로 차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5품 성균관 직강에 제수되었다. 이후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의정부, 승정원 등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으며, 1570년에는 담양으로 낙향하였다가 1571년 다시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사헌부 대사헌과 부제학, 예문관제학, 예조참판, 공조참판 등의 관직을 두루 거쳐 1577년 사망하였다. 여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희춘이 직접 장만한 복식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567년 11월 12일: 유희춘은 쥐기죽 열 벌을 승지 허엽에게 주고 사모(紉帽)와 이엄(耳掩)을 만들도록 명해줄 것을 청했다.
- 1567년 11월 17일: 유희춘은 각대(角帶)를 만들기 위해 그 비용을 권대덕에게 주었다.
- 1568년 1월 24일: 손정식이 새로 만든 사모를 보내왔다.

5) 정창권, 「일기(日記)를 통한 우리 생활사 엿보기」, 『한국학연구』 18(2003), 228쪽.

- 1569년 8월 20일: 은대(銀帶)를 만드는 장인 김세운과 상의하였다.
- 1570년 7월 초9일: 조복을 구사맹에게서 빌려 왔다.
- 1570년 7월 24일: 첩이 여전히 언문 편지로 유희춘에게 홍화를 청하였다.
- 1570년 8월 12일: 호조 내수사의 갓 만드는 사람이 와서 약속을 하고 모양을 보고 갔다.
- 1570년 8월 14일: 선상 무명베 여덟 필로 명주베 네 필을 샀다.
- 1570년 9월 초3일: 공인이 와서 갓의 정수리에 옥을 붙여주었다.
- 1571년 3월 초9일: 은대를 최경숙에게 빌려 오고 사모를 박호원에게 빌려 왔다.
- 1571년 9월 15일: 서리가 사헌부의 옥관자를 가지고 왔기에 나는 곧 갓에 고쳐서 달았다.
- 1571년 10월 21일: 부인의 편지에 명주베 3-4필과 단목 2근, 홍화 몇 두를 급속히 사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 1573년 8월 22일: 저녁에 손자 광선의 혼숫감을 부인과 의논했는데 먼저 안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1576년 5월 15일: 관대는 갓을 쓰고 흑단령을 입고 금대를 띠었다.

위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식을 장만하는 일이 전적으로 여성 위주의 일은 아니었다. 유희춘은 부인과 함께 손자의 혼숫감을 의논하기도 하고, 궐에 들어갈 때 입는 상복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중에서도 유희춘이 직접 마련하고 있는 품목들은 관복과 관계된 것으로, 각대, 사모, 은대, 갓, 옥관자 등이다. 이들을 장만하기 위해 유희춘은 직접 구매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원으로부터 빌리기도 하고, 장인에게 부탁하여 특별히 제작하기도 한다.

먼저 각대는 상복이나 공복을 착용할 때 허리에 두르는 띠로 신분을 나타내는 품목이다. 『경국대전』을 보면, 각대는 5품 이하가 착용하는 대이며, 은대는 3-4품이 착용하는 대이다. 따라서 처음 1567년 성균관 직장이 되었을 때는 각대를 착용하였다가 이후 관직이 올라가자 1571년에는 은대를 빌렸다. 그런데 유희춘이 은대를 빌린 1571년은 이미 종2품에 올랐던 시기이므로 은대가 아닌 금대를 착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대를 빌린 것을 보면 엄격하게 신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76년에는 종2품에 올랐으며, 금대를 띠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직품에 맞게 대를 구비한 것으로 대의 착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모이다. 사모는 단령에 착용하는 관모이다. 사모 역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에 사모는 빌려서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1567년 11월 15일에는 서리가 전하께서 하사하신 사모와 이엄을 가지고 와 감격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관원이 직접 장만하기도 하고 하사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엄은 추위가 시작하는 10월경부터 쓰기 시작하는 방한용품으로 조선 후기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대전(大殿)에만 진상하는 물종이었다. 상의원에서 초피사모이엄(貂皮紗帽耳掩), 서피사모이엄(鼠皮紗帽耳掩), 적호피립이엄(赤狐皮笠耳掩) 등을 올리면 임금이 그 수를 가감하여 신하들에게 내려주었다.⁶⁾

갓은 사대부 남성들이 편복에 착용하는 대표적인 관모이다. 이 역시 여성이 장만하지 않고 유희춘이 직접 장만하였다. 특히 갓 만드는 사람이 직접 와서 보고 간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주문제작에 해당하는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염색을 하기 위한 홍화는 부인이나 첩이 직접 구하지 않고 유희춘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⁷⁾ 홍화는 공납하는 물건으로 제철이 아니면 무역해 써야 하는 귀한 물건이므로 부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홍화는 곡산, 가산, 영흥 등의 군수 등이 보내주었으며, 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구입해야 했다.

따라서 유희춘이 주체가 되어 장만한 복식은 장인이 만들어야 하는 품목이거나 쉽게 구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하는 각대, 은대, 사모, 갓, 옥관자, 이엄, 홍화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송덕봉

송덕봉(1521-1578)은 유희춘의 부인이다. 그녀는 16세기 여느 여성들과는 달리 문집을 남겼으며 일기 자료도 남아 있어 16세기 경사와 시문에 뛰어난 여사로 알려져 있다.⁸⁾ 그러나 집안에서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이 가족의 의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었음은 다른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과

6) 이민주, 「『尙方定例』의 편찬 과정과 특징 -왕실복식의 節用을 중심으로」, 『藏書閣』 27호(2012), 85쪽.

7) 『眉巖日記』 辛未(1571) 10월 21일. “夫人簡云 內綿紬三四匹 舟木二斤 紅花數斗 急速買送云云.”; 庚午(1570) 7월 24일. “妾依舊 諺筒乞紅花云.”

8) 이성임, 「16세기 송덕봉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역사학연구』 제45집(2012), 99쪽.

같다.

유배를 마치고 처음 관직을 제수받았을 때 송덕봉은 제일 먼저 흑단령을 장만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그리하여 흑단령을 만들 옷감인 세마포를 연산현감에게 부탁하였으⁹⁾, 그 부인이 12승 면포 40척을 보내와 단령을 직접 제작하였다. 이처럼 부인은 복식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비느질을 감독하거나 옷을 장만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송덕봉이 주체가 되어 장만한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567년 10월 15일: 아내가 단령이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연산현감 황대유의 부인에게 세마포를 부탁했는데 그 부인이 12승 면포 40자를 보내왔다.
- 1569년 8월 1일: 낮에 부인의 청에 의해 새로 지은 당상의 길복을 입어 보았다. 장단을 보기 위해서이다.¹⁰⁾
- 1569년 8월 28일: 부인이 새로 만든 비단이불과 항상 입는 단령을 보내왔다.
- 1570년 6월 29일: 나사침이 보낸 베로 부인이 단령을 지어 보내왔다.
- 1573년 9월 20일: 부인이 명주에 물을 들였다. 광선의 혼숫감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 1573년 12월 30일: 부인이 단철릭과 버선을 보내왔다.
- 1574년 2월 22일: 부인이 수저고리와 직령, 방의 등을 보내왔다.
- 1574년 7월 27일: 부인이 종을 시켜 한강에서 쪽풀을 뜯어 왔다.
- 1574년 7월 28일: 부인이 네 덩어리의 얼음을 가져다가 명주베에 쪽물을 들여 바람에 말리니 다섯 필이다.
- 1574년 9월 17일: 부인이 냉증으로 조금 구토를 했는데 옷 짓는 것을 감시하라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 1575년 11월 13일: 부인이 광선의 혼사 때 입을 흑단령을 손수 재봉하였다.
- 1576년 1월 초8일: 부인이 광선의 납채를 위해 손수 재봉하여 함에 넣었다.
- 1576년 2월 13일: 광선이 신혼의 예복을 입었는데 모두가 정하고 아름다우며 꼭 맞다. 부인이 지어준 것이다.
- 1576년 3월 14일: 식후에 영란이 하직을 하고 돌아갔는데 부인은 저고리를 만들어주었고 딸도 분을 주었다.

송덕봉이 복식을 장만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은 혼례 등의

9) 『眉巖日記』丁卯(1567) 10월 15일. “衙惠綿絮及裕次 徐益母氏 遺十五升羅交織次 連山宰黃大猷 惠團領次十二升木綿 皆可謂大濟矣.”

10) 『眉巖日記』己巳(1569) 8월 1일. “午 因夫人請 著新堂上吉服 以驗其長短也.”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거나 계절에 맞게 복식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장만하는 역할이었다. 『미암일기』를 보면, 3월이 되면 털옷이나 가죽옷을 벗고 명주옷을 입는다. 이 때 옷을 바꿔 입는 날짜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날씨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착용하도록 미리 장만해 놓아야 했다. 이에 따라 집에서는 미리 의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옷을 장만할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570년 6월 29일 송덕봉은 모시 단령을 직접 지어 보냈으며, 1571년 9월에는 솜저고리를 지어 보냈다. 이는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모시옷을 장만하고 찬바람이 불기 전에 솜옷을 장만하기 위해 직접 제작에 가담한 것이다.

1568년 6월 13일에는 유희춘에게 모시답호 한 벌과 모시철릭 한 벌이 노(奴)에 의해 전달되었다.¹¹⁾ 이는 부인 송덕봉이 첩에게 옷감을 보내주고 첩이 제작한 것을 노를 시켜 유희춘에게 전달되게 한 것이다. 유희춘이 6월 13일에 모시옷을 받았으니 옷 짓는 시간과 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옷감을 첩에게 보냈어야 한다. 조선 중기 관직에 있는 사대부들은 부인과 같이 살기도 하였지만 유희춘과 같이 남편은 서울에 있고 부인은 담양(해남에도 거주)에 살고 첩은 해남에 거주하는 등 서로 생활하는 영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옷감을 전달하고 바느질하여 완성된 옷을 전달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부인의 역할은 직접 바느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한 집안의 의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유희춘이 췌에 들어갈 때의 기본적인 차림새는 어떠했을까?

유희춘은 보통 새벽 4시에 해당하는 파루에 일어나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한다. 다음에 상투를 틀고 동곳을 꼴는다. 일기를 보면 측간에 갔다가 동곳을 빠뜨렸는데 비(婢)가 다음날 아침에 찾아주었다¹²⁾는 기록이 있어 유희춘의 머리술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인의 큰 다리로 나의 작은 다리를 바꿔주었기 때문에 두발이 흩어지지 않았

11) 『眉巖日記』 戊辰(1568) 6월 13일. “妾裁送苧裕護一部 苧帖裏一事來 乃潭陽細君送衣資于妾 而令妾裁送于此也 聞於蘭萬戶鄭鴻深喜 吾救簡于三處也.”

12) 『眉巖日記』 丙子(1576) 4월 20일. “昨朝如廁偶落髻釵 求之不得 今朝令婢金香更覓得之 深喜沈喜.”

대³⁾는 기록으로 보아 남자들도 머리카락이 적은 경우 다리를 붙였음을 알 수 있다.

머리치장이 끝나면 다음은 옷을 입는다. 유희춘은 대궐에 들어갈 때는 부인이 직접 제작해 준 단령을 입고 머리에는 사모를 썼다. 사모는 빌리기도 하고 장인이 만들어주는 것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사모 아래에 이엄을 쓰는데, 이엄은 담비털이나 쥐털로 만든다. 유희춘의 이엄은 사모와 함께 임금의 하사해준 것을 착용하고 입궐하였다.

단령 위에는 허리에 대를 띠다. 대는 유희춘의 형편과 직품에 맞게 착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각대를 빌렸으며, 금대를 착용하는 종2품의 관원이 되었을 때는 직접 구입한 것을 띠고 궐에 들어갔다.

3) 복식 장만의 양상

조선 중기 시대부 집안의 복식은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기본적으로는 직접 바느질을 하여 옷을 꿰맸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옷이 아닌 관모류나 대, 신발과 같은 부속물들은 집에서 제작할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이에 『미암일기』를 통해 사대부 집안에서 필요로 하는 복식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제작, 구매, 대여, 선물, 하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작

조선시대 복식을 장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집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다. 바지, 치마, 저고리, 답호, 철릭, 시복, 단령, 버선 등과 같이 옷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포함하여 첩, 딸, 며느리, 여종과 지인 등 여성들이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제작한 복식이 무엇이었던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568년 6월 13일: 첩이 모시답호 1벌과 모시 철릭 1벌을 만들어서 보내왔다.
- 1570년 4월 25일: 정모(貞母)가 와서 나의 시복을 지어주어 나는 쌀, 보리, 자리, 짚신, 부채, 말린 꿩 등을 주었다.
- 1571년 5월 18일: 해남에서 비부(婢夫) 광청이 본가에서 보낸 의복 8벌을

13) 『眉巖日記』 癸酉(1573) 8월 25일. “夕 夫人脫以大鬣 易吾之小鬣 自是頭髮不散.”

가지고 왔다.

- 1572년 12월 28일: 순천의 영춘이 저고리를 지어 보냈다.
- 1574년 6월 21일: 경림의 편지에 흥문이 큰 흥역을 잘 치러 몸이 점점 회복되고 있으며, 부윤 이충작이 보살펴주어서 부지한다고 하니 이는 크게 기쁜 일이지만, 단 며느리 김씨가 어지럽고 힘이 없는데 늙어가면서 더욱 심해져 의복을 전혀 만들 수가 없으므로 경림이 의복 만드는 일을 여종 복수에게 맡기려 한다고 하였다.
- 1575년 11월 13일: 부인이 광선의 혼사 때 입을 흑단령을 손수 재봉하였다.
- 1576년 1월 17일: 딸이 솜을 둔 흑의(黑衣)를 만들어 윤관중에게 보내어 입고 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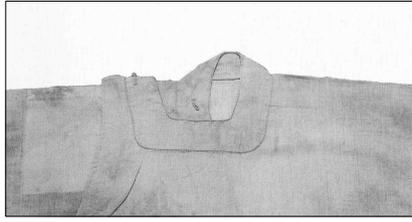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남편의 옷은 기본적으로는 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다만 부인이 아프거나 직접 제작할 수 없을 때에는 옷감을 미리 장만하여 첩이나 여종에게 보내서 만들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처음 관직에 나갈 때 입을 단령을 비롯하여 유희춘이 께에 들어갈 때 착용하는 단령은 부인이 직접 만들어 주었으며, 손자의 혼례식에 입을 단령도 송덕봉이 직접 만들었다. 이는 부인으로서 할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옷을 손수 만들어줌으로써 단순한 제작 이상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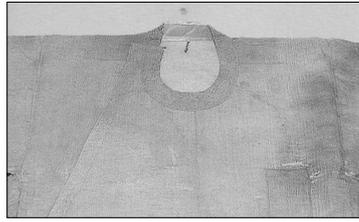
단령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옷들과는 깃의 모양이 다르다. 복식의 명칭이 '단령'인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령의 둥근 목둘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한다. 특히 단령을 만들 때에는 옷감이 잘 늘어나는 바이어스로 옷감을 마름질하거나 식서 방향으로 마름질할 경우에는 옷감을 늘여가며 깃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현전하는 출토유물 중 미암 유희춘과 비슷한 시기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송희종의 단령은 도1과 같이 식서 방향으로 마름질하였으며 모서리 부분은 둥근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송효상의 무덤에서 나온 단령은 도2와 같이 바이어스 방향으로 마름질하여 둥근 깃으로 되어 있다.¹⁴⁾ 어떤 방향에서 마름질했어도 목둘레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한다.

14) 대전선사박물관, 『옷살 사이로 비치는 조선』(2009), 20-27쪽.



도1-송희종의 단령(16세기)



도2-송효상의 단령(15-16세기)

『미암일기』를 보면 단령을 제작하는 것은 늘 송덕봉 자신이 담당하였다. 이로써 그녀의 바느질 솜씨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74년 9월 17일 일기에는 옷 짓는 것을 감시하느라 차가운 마룻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냉증으로 구토를 하였다¹⁵⁾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느질을 관리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송덕봉은 옷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1569년 8월 1일 송덕봉은 유희춘에게 새로 지은 당상관의 길복을 입어보라고 청한 것¹⁶⁾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옷의 품과 길이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목둘레가 제대로 되었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맵시를 보고자 했을 것이다. 이처럼 옷이 완성되면 옷의 맵시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 송덕봉이 복식을 장만하는 데 제작에서부터 공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생활 전반에 걸쳐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구매

복식을 장만하는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필요한 복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미암일기』에는 옷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완성품을 사기보다는 옷감을 주로 구입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외에 장인이 만들어야 하는 관 대, 가죽신 등은 구매를 통해 장만하였다. 여기에서는 유희춘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568년 4월 23일: 보리 두 섬으로 오륙승의 무명베 다섯 필을 샀다.
- 1568년 4월 25일: 박충의 녹 쌀 다섯 섬 두 말로 저고릿감으로 단자(緞子)

15) 『眉巖日記』 乙亥(1574) 9월 17일. “夫人患冷症微嘔吐 以監裁衣 坐板堂故也.”

16) 『眉巖日記』 己巳(1569) 8월 1일. “午 因夫人請 著新堂上吉服 以驗其長短也.”

18척(尺)과 금실로 짠 대홍 단자 다섯 척을 샀다.¹⁷⁾

- 1569년 5월 24일: 부인이 오승 목 25필로 치맛감으로 남색 비단을 샀다.¹⁸⁾
- 1570년 8월 10일: 오승 목 한 필 반으로 충정관(忠靖冠)을 샀다.¹⁹⁾
- 1574년 4월 27일: 성절가의 통사 백원개가 와서 조복을 살 값으로 인삼 두 냥, 녹포 세 필, 가는 모시베 한 필을 받아 갔다. 모자라는 은 두 냥의 값은 객산재 이봉과 서장관 허봉이 각기 한 부분의 값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허봉에게는 도와주지 말라 하고 우리 집에서 다시 베 두 필을 보냈다.²⁰⁾

유희춘가에서는 물물교환을 통해 복식을 장만하였다. 오승(五升) 목면을 팔아 치마나 저고리를 만들기 위한 비단을 사기도 하였으며, 당시에 유행하였던 충정관을 사기도 하였다. 또 조복과 같은 관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은이나 직물을 주고 구입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직물은 단연 사라능단이였다. 그러나 사라능단은 그 값이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들이 입기를 좋아하자 통사들이 많은 금은을 가지고 무역해 와 폭리를 취하던 물건 중 하나였다.²¹⁾

이러한 사라능단의 사치는 1516년(중종 11)을 전후해서부터 더욱 심해져 임금이 몸소 검소를 실행하고자 하였으며, 대신들의 의복도 토산품을 사용하도록 교지를 자주 내렸다.²²⁾ 이후 부녀자 및 재상까지도 사라능단을 금하게 하였으나²³⁾ 종실(宗室), 재상 및 부녀들의 걸옷은 모두 아청색 비단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으므로 무역을 금한다면 법을 세운 본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 하여 사치를 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²⁴⁾

17) 『眉巖日記』 戊辰(1568) 4월 25일. “以朴忠義義祿米全五石二斗 買赤古里段子十八尺及金線大紅段子五尺.”

18) 『眉巖日記』 己巳(1569) 5월 24일. “夫人 以五升木二十五匹 買裳次藍段子.”

19) 『眉巖日記』 庚午(1570) 8월 10일. “李效元來謁 見余所著冠曰 冲靜冠最好 戶曹內有二工造賣 其直五升木一匹半 辛應時亦買而著之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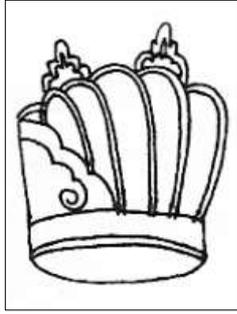
20) 『眉巖日記』 甲戌(1574) 4월 27일. “聖節使通事白元凱 來受朝服價人參二兩 祿布三四 紬苧布一匹而去 其餘銀二兩價 則郭山宰李鳳 書狀官許筭 各補其一價 相約矣後令許筭勿動自家更加出布二匹.”

21) 『중종실록』 3년(1508) 11월 6일 경자.

22) 『중종실록』 11년(1516) 10월 21일 기사; 11년 22일 경오; 11년 24일 임신; 11년 28일 병자.

23) 『중종실록』 11년(1516) 10월 29일 정축.

24) 『중종실록』 11년(1516) 11월 2일 기묘.



도3-충정관(『삼재도회』 소재)²⁹⁾



도4-장현광의 충정관 착용도³⁰⁾



도5-김만중의 충정관 착용도

이런 혼란을 겪는 와중에 사치의 풍습은 나날이 심해져 옷뿐만 아니라 베개, 이불, 요, 휘장까지도 사리능단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무역이 성행하였다.²⁷⁾

이후 계속되는 사치 금지로 사리능단의 사용이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암일기』에는 목면을 주고 단자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녀자 복식 중 특히 비단으로 만든 치마저고리는 당시 여인들이 가장 입고 싶어 했던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충정관은 당시 사대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관모이다. 우리나라에 충정관이 들어온 것은 1537년(중종 32)의 일이다. 원래 중국의 천사가 쓰고 온 것을 보고 그 모양을 본떠 만들고 난 후 도로 주고자 하였으나 “조선이 예의를 지키는 나라이기에 지금의 황제가 만든 관과 대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라고 하며 천사가 충정관과 충정건을 선물하면서부터였다.²⁸⁾

도3에서와 같이 『삼재도회』에 수록된 충정관의 모습은 정상이 비스듬하고 둥그스름하며 고저·기복이 있어 구름 모양 같고 양관(梁冠)의 몸체를 모방하여 사면이 둥그스름하게 둘러져 귀통이가 없는 형태이다.²⁹⁾ 그러나 도4의 장현광(1554-1637)과 도5의 김만중(1637-1692)이 착용한 충정관은 중국의 충정관과는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충정관은 중종조부터 호조에서 만들어

25) 徐海榮, 『中國服飾大典』(杭州: 華夏出版社, 1999), 25쪽.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仁同張氏 旅軒宗宅 寄託典籍』(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5쪽.

27) 『중종실록』 11년(1516) 11월 8일 을유.

28) 『중종실록』 32년(1537) 3월 17일 병신.

29) 『清江先生鯁鱗瑣語』 李濟臣纂.

팔았으며, 그 값은 오승 목 한 필 반이었다. 유희춘도 호조 내수사를 통해 충청관을 구입하였으며 문관뿐 아니라 귀천을 막론하고 인기가 있었다.³⁰⁾

다음은 조복이다. 조복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제용감(濟用監)에서 장만하여 관원에게 지급하는 관복이었다. 1471년(세종 2) 예조정랑 김자정은 “세종조에는 백관의 조복, 공복은 제용감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주었는데 공복은 사가에서 갈무리를 하므로 이제 전하는 것이 없고, 조복은 관사에서 갈무리를 하여 이제까지 착용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더럽고 헤어져서 특히 조체가 없게 되었다³¹⁾”라고 한 것으로 보아 중종대에는 조복을 개인적으로 장만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²⁾

이처럼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유희춘은 1570년에는 구사맹으로부터 조복을 빌려 입었으며³³⁾, 1574년에는 조복을 구입하기 위해 통사에게 비용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조복의 구성을 『경국대전』에서 보면, 양관(梁冠), 적초의(赤綃衣), 적초상(赤綃裳), 적초폐슬(赤綃幣膝), 백초중단(白綃中單), 수(綬), 대(帶), 홀(笏), 패옥(佩玉), 말(襪), 혜(鞋)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은 조선 말까지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발목이 낮은 혜 대신 발목이 높은 화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1508년(중종 3) 박원종이 백관의 조복과 제복에 신는 화를 중국에서 얻었는데 매우 정결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혜말은 누추하니 중국 제도를 따를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유순 등도 혜말이 누추하여 제복, 조복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하자³⁵⁾ 조복에 신던 흑피혜가 흑피화로 바뀌었다.

문무관의 관복은 제복과 조복의 구성이 같다. 다만 의의 색이 제복은 청색이며, 조복은 적색이고, 중종 이후 혜가 화로 바뀐 것만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국조오례의서례』에 실려 있는 문무관 관복도설을 통해 조복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의 도6과 같다.

30) 이민주, 「『眉巖日記』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제23호 (2006), 1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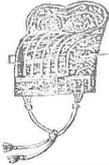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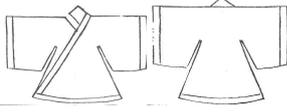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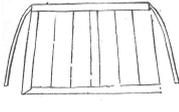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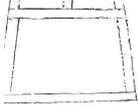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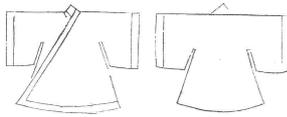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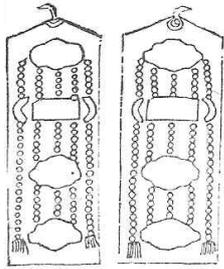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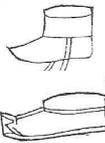
31) 『세종실록』 2년(1420) 5월 18일 경인.

32) 『중종실록』 3년(1508) 9월 14일 기유.

33) 『眉巖日記』 庚午(1570) 7월 11일. “借朝服于具公思孟來.”

34) 『眉巖日記』 甲戌(1574) 4월 27일. “聖節使通事白元凱 來受朝服價人參二兩 祿布三四 紬 苧布一匹而去 其餘銀二兩價 則郭山宰李鳳 書狀官許筭 各補其一價 相約矣後令許筭勿助 自家更加出布二匹.”

35) 『중종실록』 3년(1508) 9월 14일 기유.

冠	衣	裳	蔽膝
			
綬	中單	帶	大帶
			
笏	佩玉	襪履	靴
			

도6-문무관 관복도설(『국조오례의서례』 소재)

(3) 대어

16세기 사대부 집안에서 복식을 장만하는 방법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필요한 복식을 빌려 입는 풍속이다. 『미암일기』를 보면 유희춘이 유배에서 풀려 나 처음 관직에 나아갈 때 사모와 이엄을 빌리는 것을 비롯하여 각대를 빌리기도 하였으며³⁶⁾, 은대를 빌리기도 하였다.³⁷⁾ 또 조복을 빌려 입기도 하였으며³⁸⁾, 공복(公服)을 빌려 입기도 하는 등 관복과 관계된 품목들을 주로 빌려 입고 있다. 또 혼례와 같이 일회성의례를 치를 때에도 복식을 빌려 입었다³⁹⁾ 여기에서는 빌려 입은 품목이 무엇이었던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567년 10월 29일: 나는 사모와 이엄을 모두 전적 나사선 형에게 빌리고,

36) 『眉巖日記』 丁卯(1567) 10월 29일. “余借紗帽耳掩俱于羅典籍 借角帶于許承旨.”
37) 『眉巖日記』 辛未(1571) 3월 9일. “借銀帶于崔景顯肅 借紗帽于朴公好元來.”
38) 『眉巖日記』 庚午(1570) 7월 11일. “借朝服于具公思孟來.”
39) 『眉巖日記』 癸酉(1573) 10월 23일. “借安慶男婚笠來 甚合於光先之頭 深喜深喜, 余以光先婚函大袱爲借 朴公許之.”

각대는 허엽에게서 빌렸다.

- 1568년 1월 24일: 학관 심연이 술병을 들고 찻이와 조복과 흑단령을 빌려왔는데 흑단령은 가부장이 입었던 것이다.
- 1570년 7월 11일: 구사맹에게서 조복을 빌려 왔다.
- 1573년 3월 14일: 나는 정원에서 공복을 빌려 입었다.
- 1573년 10월 6일: 광선의 혼인 때 쓸 갓을 성판서의 아들이 장가갈 때 썼던 것으로 빌렸다.
- 1573년 10월 16일: 안경남의 갓을 빌려 왔는데 광선의 머리에 꼭 맞으니 아주 기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품목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그것도 사대부 집안의 일기 속에 ‘차(借)’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미암은 복식뿐 아니라 많은 책을 빌렸으며, 말도 빌렸다. 따라서 이 당시 대여의 풍속은 복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반적인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70년 11월 2일의 일기에는, “황해감사 김공이 나에게 공복을 보내왔는데 이는 내가 공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구해준 것”⁴⁰⁾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옷이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정도로 조선 중기 인간관계는 상당히 개방적이었으며,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여의 풍속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나온 방책이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유희춘은 1570년 7월 11일 구사맹으로부터 조복을 빌렸다. 이때는 유희춘이 승정원의 우부승지로 승급된 때였다. 이후 1574년 4월 27일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복을 사기 위하여 인삼 2냥과 녹포 3필, 가는 모시 1필을 통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때는 종2품으로 승급된 때이므로 역관을 통해 복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희춘은 직품이나 형편에 따라 복식을 대여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선물

미암 유희춘이 복식을 장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변

40) 『眉巖日記』 庚午(1570) 11월 3일. “黃海監司金公啓 製送公服來 知我無公服而救之也.”

사람들이 보내는 선물이었다. 유희춘이 받은 복식 관련 내용을 보면, 사모·이엄·갓·갈모·관자 등 관모류뿐 아니라 철릭·답호·단령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옷감·신·버선·빗집·토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복식류 전반을 충당하고 있다.

『미암일기』에는 단순히 선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반드시 아무 대가가 없는 선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573년 구성부사 신계원의 첩이 자색 저고리를 보내왔는데 부인이 물리쳤다는 기록과 함께 본인도 전일 임침지 진이 승상(細末)을 주려는 것을 물리쳤다⁴¹⁾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선물 이상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선물로 받은 품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573년 9월 큰달 초8일: 울진의 정구수가 망건을 보내왔다.
- 1573년 9월 큰달 초8일: 새 철산 군수 이연신이 와서 부임한다고 고하며 손자의 혼사에 쓸 가죽신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갔다.
- 1573년 9월 큰달 20일: 김제 군수 김사원이 은혜 한 켈레를 보내왔다.
- 1573년 10월 작은달 초3일: 변간중이 모시 한 필과 교포 한 필을 보내왔다.
- 1573년 10월 19일: 호관 성세장 공이 금을 박은 작은 흑화를 보내왔다. 광선의 혼인 시에 신이라는 것이다.⁴²⁾
- 1574년 2월 20일: 순창 군수 김대가 광선의 혼숫감으로 추피와 등자, 분투 등을 보내왔다.
- 1574년 6월 작은달 28일: 천안 군수 최연이 종책(鬃積) 하나와 말린 송어 일곱 마리를 보내왔다.
- 1574년 7월 작은달 11일: 전라 감사 박민현이 갈모와 안장싸개 각 하나씩을 보내왔다.
- 1575년 11월 17일: 용안 현감 김천일이 따뜻한 토시를 보내왔다.
- 1575년 12월 초4일: 어제 김부가 버선을 올렸고 흥덕의 첩 해복이 속옷을 해 보냈으며, 오늘은 광문의 처 고씨도 버선을 보냈다. 나의 육촌 누이인 안씨도 버선을 보내왔다.
- 1575년 12월 17일: 희릉의 하인이 경림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광선의 결혼 때에 쓸 망건, 자지증대 한 벌, 신노의 초립 한 벌을 보내왔다.

41) 『眉巖日記』 癸酉(1573) 2월 17일. “朝 龜城府使辛繼元妾 以夫人族親 送紫衣 夫人却之 余亦頃日林僉知潛 欲遺細床 余辭之.”

42) 『眉巖日記』 癸酉(1573) 10월 19일. “戶判成公世章 以小黑靴夾金者送來 爲光先婚著也 深成深感.”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희춘가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선물로 주는 물품의 내용 및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의 면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관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친인척들이 보내주었던 것에 반해 후기로 가면서는 울진·철산·김제·순창·천안·전라·용안 등의 군수나 감사가 관모·신·토시 등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보내오는 일이 많아졌다.

또 유희춘가에서 치러지는 손자의 혼례나 유희춘 부부의 생일 등 특별한 행사에 보내는 물품이 많아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손자의 혼사와 유희춘이나 부인의 생일선물이다. 혼사는 혼인을 하는 당사자의 일이라기보다는 혼주인 부모의 일이 더욱 크다. 그런데 유희춘가에서는 특히하게도 손자의 혼사를 치르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유희춘과 부인이었다. 유희춘은 손자가 쓸 것과 사모 등을 빌리고 조복을 구입하는가 하면, 송덕봉은 직접 흑단령을 만들고 채단을 꾸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유희춘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유희춘과 부인의 생일을 맞이해서는 종제, 서녀, 손부 등이 버선을 보내왔다. 이는 날씨가 추워졌다거나 건강을 염려하면서 보낸 것으로, 대가성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가족 간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5) 하사

하사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특별한 선물이다. 1576년 10월 13일의 일기에는 중관이 붉은 보자기 2개에 대홍견철릭 하나, 백면주과두 하나, 흑화 한 쌍을 싸서 들고 와 희춘의 앞에 놓으면서 “이것은 내가 입고 신던 물건으로 경은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⁴³⁾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임금이 입었던 옷을 직접 내림으로써 관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사품으로 받은 물품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567년 11월 15일: 저녁에 홍문관 서리가 전하께서 하사하신 사모와 귀달개를 가지고 왔다. 감격하여 목이 메었다.

43) 『眉巖日記』 丙子(1576) 10월 13일. “…… 中官以紅袱二裹 大紅繡帖裏一事 白綿紬裹肚一事 黑靴一雙 置於臣希春前 上曰 此乃予所著持之物 卿勿辭而受 ……”



도7-사모와 이엄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⁴⁴⁾



도8-립에 착용한 사모⁴⁵⁾

- 1569년 8월 27일: 여러 신하들 중에 내가 받은 것은 50자짜리 백면포 한 필, 50자짜리 자주색 명주베 한 필, 50자짜리 붉은색 다듬어진 명주베 한 필, 50자짜리 흰색 다듬어진 명주베 한 필이었는데 여러 신하들에게 각기 차등이 있게 주셨다.
- 1570년 10월 6일: 전하께서 사모와 담비 가죽 이엄 14개를 하사하셨는데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고맙기 그지없다.
- 1576년 10월 13일: 중관이 붉은 보자기 2개를 들고 나왔는데 큰 붉은 명주 속옷 한 벌, 하얀 무명에 명주 속을 넣은 바지 한 벌, 검은 가죽신 한 쌍을 싸서 신 앞에 가져다 놓았다.

『미암일기』를 통해 볼 때 임금의 하사품 중 가장 귀한 물건은 이엄이다. 이엄은 관모 아래에 받쳐 쓰는 방한용 귀털개이다. 이엄은 왕실의 내탕고인 상의원에 진상한 초피나 서피로 만들었으며,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려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이다. 이엄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착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도7은 사모 아래에 이엄을 쓴 조선 후기 관리의 모습이며, 도8은 갓 아래에 이엄을 쓰고 있다.

이 외에도 임금은 면포나 명주, 다듬이질을 한 명주 등을 신하에게 내려주었으며, 실제 착용하였던 철릭, 답호 등의 복식도 내려주었다. 임금의 하사품은 값비싼 선물이기도 하지만 임금이 신하를 사랑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마음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44) 윤진영, 「구한말 서울의 한 상업가 이야기」,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태학사, 2011), 229쪽.

45) 조홍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민속원, 2004), 95쪽.

이와 같이 유희춘은 집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장인이나 무역을 통해 구입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빌리기도 하고, 임금이나 지인으로부터 복식을 선물 받음으로써 한 집안의 의생활이 운영되었다. 유희춘이 장만한 복식이 어떻게 입혀졌는지 살펴보자.

유희춘은 쥬 안에서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1573년 5월 11일 이른 아침에 영칙을 하기 위하여 백관이 시복을 입고 먼저 모화관에 갔다. 나는 판서 박공과 함께 앉았는데 진시 초에 사은사의 서장관 이언이가 칙을 받들고 왔으므로, 백관이 허리를 굽히고 지영을 했다. 아래에서부터 먼저 인도하여 백관이 경복궁 근정전에 이르러 영칙을 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동랑의 처마로 들어가 행례를 했다. 행례가 끝난 뒤 의막으로 들어가 조복으로 같이 입고 본조의 하례를 행했다. 예가 끝난 뒤에 공의전으로 가서 문안을 하니 어젯밤부터 편히 잠을 자고 몸에 땀이 조금 나며 전보다 더 나아지셨다고 한다. 중신의 기쁨이 어찌 한량이 있으랴. 문안이 끝난 뒤에 승문원으로 가서 성절사의 문서를 올리는데 나는 의자에 앉아 간혹 졸 때가 있었다. 미시 말에 파하고 집에 돌아왔다.⁴⁶⁾

유희춘은 보통 4시인 파루를 전후하여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단령을 입는다. 이날은 칙서를 맞이하기 위하여 백관들은 시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갔으나 유희춘은 상복을 입고 쥬 안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영칙의 행례를 할 때에는 공복으로 같이 입었는데, 이때 공복은 쥬 안에 마련해놓은 것으로 바꿔 입었다. 행례를 끝낸 후에는 조복으로 같이 입고 임금께 하례를 드렸다. 이때의 조복은 개인이 장만하였는데 이를 위해 대여를 하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였다. 의식이 끝난 후에는 다시 단령을 입고 3시경에 퇴근하였으므로, 이날 유희춘은 11시간을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옷을 바꿔 입고 행례에 참여하였다.

46) 『미암일기』 계유(1573) 5월 11일. “朝陰晚晴 早朝 以迎勅 百官以時服 先詣慕華館 余與判書朴公忠元同坐 辰初 謝恩使書狀官李彥怡 奉勅而至 百官鞠躬祇迎 自下先導 百官到景福宮勤政殿 迎勅 適以雨入 東廊簷下 行禮畢 出寓依幕 更著朝服 入行本朝賀禮 禮畢 詣恭懿殿問安 自去夜安寢 過一更 脈度至六 身微汗 比前益向差 興喜何極 問安既畢 詣槐院 以聖節使文書監進 余據倚子 或有睡時 未末罷歸舍.”

III. 복식의 관리

복식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질과 보관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또 입거나 써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 중기에는 복식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미암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손질

『미암일기』에는 복식을 손질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중에서도 빨래는 여성의 일인 동시에 여종들의 일이므로 특별히 기록해놓지도 않았다. 그러나 1574년 6월 21일 아들 경림의 의복을 빨래해주는 가인(家人)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일기에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희춘이 세탁에 대한 어려움까지도 이해할 정도로 의생활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탁 방법은 방망이로 두들기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옷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으로 비벼 빼는 방법에 비해 세탁효과는 크고 힘은 덜 드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옷은 단추나 기타의 부속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망이로 두들기고 냇물에 흔들어 널면 햇빛에 의해 더욱 하얗게 된다.

또한 의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품인 인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기도 하고 선물로도 많은 왕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풀을 먹인 후 다듬이질을 함으로써 비단과 같이 광택의 효과를 준다.

조선 중기에 많이 사용한 면포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세탁을 하고, 삶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하거나 흥두깨를 올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거친 무명을 윤기가 흐르는 공단과 같은 느낌으로 변하게 함은 물론 때도 덜 타게 한다.⁴⁷⁾ 옷감에 물을 들이는 작업이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피부에 닿았을 때 항균효과와 살충효과가 높은 것도

47) 이민주, 「개항기 외국인의 기록과 삽화를 통해 본 복식문화」, 『역사민속학』 27호 (2008), 221쪽.

사실이였다. 여기에서는 『미암일기』에 수록된 손질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571년 2월 9일: 부인이 인두와 부인의 신을 광문의 처에게 보냈다.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도리다.
- 1573년 5월 14일: 아침에 옥구 현감 김평세가 미투리, 인두, 가위, 빗 등을 보내왔다.
- 1574년 6월 21일: 유진이 그 가인을 시켜 경렴의 의복을 빨래해준다고 하니 고마운 일이다.
- 1570년 7월 24일: 첩은 여전히 언문 편지로 홍화를 칭하였다.
- 1571년 9월 21일: 부인의 편지에 명주베 3-4필과 단목 2근과 홍화 몇 두를 급속히 사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 1574년 7월 27일: 부인이 종을 시켜 한강에서 쪽풀을 뜯어 왔다.
- 1574년 7월 28일: 부인이 네 덩어리의 얼음을 가져다가 명주에 쪽물을 들여 바람에 말리니 다섯 필이다.

옷감을 손질하는 과정 중 하나는 물을 들이는 것이다. 『미암일기』에는 쪽물을 들이기 위해 1574년 7월 27일 한강에서 쪽풀을 뜯어 오게 하였으며, 1573년 7월 13일에는 쪽물을 들이기 위해 얼음 다섯 덩이를 가져왔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쪽물을 들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쪽물은 면에 직접 물들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 중기에는 쪽물 들이는 것을 선호하였다.⁴⁸⁾ 쪽물을 들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생잎을 갈아서 물과 섞은 후 걸러낸 액에 옷감을 넣어 염색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석회를 넣어 쪽물을 추출하는 발효염색법이 있다.

『미암일기』에는 쪽물을 들이기 위해 얼음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보아 생잎을 치대어 염료를 추출하는 생잎 염색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쪽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요구되므로 쪽물을 들인다는 것은 사치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대사간의 말을 들어보자.

사치가 풍속을 이룬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草綠 염색도

48) 임형탁·박수영, 『식물염색 입문』(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55쪽.

지나치게 짙은 것을 숭상하여, 전에는 5-6필을 염색하던 쪽으로 지금은 1필도 염색하지 못하는데, 모두들 재군대가 및 궐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며 다투어 서로 본받아 폐습이 되었으니, 만일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밝힌다면 자연히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⁴⁹⁾

이처럼 사치 품목에 해당되는 쪽이나 홍화는 여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으나 여전히 유희춘에게는 주변의 관리들로부터 염료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유희춘가에서의 염색은 자유로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보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경우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이 중요한 집안일 중 하나였다. 특히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는 복식의 수명을 좌우한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갓이나 대와 같이 집에서 장만할 수도 없고 값이 비싼 경우에는 반드시 각(閣)이나 가(家)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 외에 가죽옷, 털옷, 모시옷, 솜옷 등은 좀이 슬거나 쥐가 뜯어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이나 함에 보관하였으며, 음식물 등이 떨어져 변색되거나 탈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유희춘가에서 복식을 어떻게 보관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1567년 12월 17일: 첨사 이선원이 준 것은 청주, 탁주가 한 동이 [...] 가슴팍이 흰 수달피 털가죽 한 벌, 가죽 보자기 한 벌이었다.
- 1568년 3월 14일: 유 참판의 부인이 사모와 품대, 보자기 2개를 보내왔다.⁵⁰⁾
- 1570년 7월 1일: 김수생이 가죽 보자기와 분투 각 1부 등을 보내왔다.
- 1573년 8월 큰달 29일: 김종려가 와서 높이가 높은 갓집을 청하였다. 내일 헌릉에 가기 때문이다.
- 1573년 10월 작은달 24일: 박첨지 인수가 부름을 받고 방문하였다. 나는 광선의 혼사의 함에 쓸 큰 보자기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박공이 허락하였다.⁵¹⁾

49) 『증중실록』 23년(1528) 8월 18일 정사.

50) 『眉巖日記』 戊辰(1568) 3월 14일. “柳參判夫人李氏 送紗帽品帶袱二介來.”

51) 『眉巖日記』 癸酉(1573) 10월 23일. “朴僉知麟壽 被招來訪 余以光先婚函大袱爲借 朴公許之.”

- 1576년 6월 18일: 부인이 무명베 3필이 쥐에 뜯긴 것을 아까워하였다.

『미암일기』에는 물건을 쌀 때 사용하는 보자기가 자주 등장한다. 당시 보자기는 복(袱)을 싸고 복을 부르는 매체로 인정하였다. 보자기는 옷감으로도 만들지만 종이에 기름을 칠해 만들기도 하고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옷감으로 만든 보자기는 채단과 같이 중요한 물건을 함에 넣은 후 다시 보자기로 싸서 이중 포장을 하기도 했으며, 옷 등을 넣어 보관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또 『미암일기』를 보면 가죽으로 만든 보자기를 자주 보내오는데, 이는 옷감으로 만든 보자기보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물품을 보관할 때 더욱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일기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의생활과 같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일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수록한 자료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16세기 사대부 유희춘이 기록한 『미암일기』를 통해 한 집안의 의생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복식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떠한 양상으로 장만되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둘째, 복식의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손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희춘가에서 복식을 장만하는 주체는 유희춘과 송덕봉이었다. 이들은 가정에서 필요한 복식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하였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복식을 장만하였다. 그리하여 옷감으로 제작하는 일반적인 복식은 부인인 송덕봉이 장만하였으며, 관복에 소용되는 사모, 대, 갓, 신발 등 장인이 제작하거나 비용이 드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희춘이 주체가 되어 장만하였다. 따라서 조선 중기 사대부 가정의 의생활을

담당한 것은 여성이었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희춘가에서 복식을 장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인이나 첩, 딸, 여종 등에 의한 제작이다. 그러나 유희춘이 빌리거나 구입하는 품목도 상당수가 있었다. 특히 유희춘이 주체적으로 장만한 복식들은 모두 구매나 대여로 장만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처음 관직에 진출할 당시에는 빌리는 것이 많았으나 점차 관직이 올라감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유희춘가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선물로 의생활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였다. 여기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처음에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의복과 같이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되는 것에 반해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군수나 감사 등 관원들로부터 충당되는 물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일기의 기록으로 보면 큰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간혹 과한 물품이 전달될 때에는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순수한 목적으로 보내졌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관원인 유희춘가에서는 임금의 하서품으로 복식을 장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이엄이며, 이 외에도 임금이 직접 입었던 옷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유희춘가에서는 복식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들의 빨래를 해주는 가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거나 인두를 주고받는 기록이 있어 일반적인 세탁 후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여 복식을 손질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사모를 담은 각을 빌려와 보관하거나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보자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아 복식을 보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미암일기』.

『선조실록』.

『세종실록』.

『중종실록』.

『청강선생후청쇄어』.

대전선사박물관, 『옷설 사이로 비치는 조선』, 2009.

박미해, 「16세기 부권과 부권의 존재양식-『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과 송덕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2002.

송재용, 「『미암일기』에 나타난 점복과 조짐, 꿈과 해몽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제25집, 2007.

윤소정,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복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윤진영, 「구한말 서울의 한 상업가 이야기」,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태학사, 2011.

이민주, 「『眉巖日記』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제23호, 2006.

_____, 「『尙方定例』의 편찬 과정과 특징-왕실복식의 節用을 중심으로」, 『藏書閣』 27호, 2012, 85쪽.

이성임, 「16세기 송덕봉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역사학연구』 제45집, 호남사학회, 2012, 99쪽.

_____, 「16세기 조선 양반관료의 사환과 그에 따른 수입-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정신문화연구』 19권 4호, 1996.

정창권, 「일기(日記)를 통한 우리 생활사 엿보기」, 『한국학연구』 18, 2003.

정치영, 「일기를 이용한 조선 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역사민속학』 제26호, 2006.

조홍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동장씨 여헌종택 기탁전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이다. 이는 조선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의생활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암 유희춘(1513-1577)이 써놓은 『미암일기』는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1일부터 1577년(선조 10) 5월 13일까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암일기』는 복식을 어떻게 장만하고 관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조선 중기 의생활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16세기 사대부 남성이 기록한 『미암일기』 속 복식의 장만과 관리를 통해 10여 년간 벌어진 조선 중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문화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희춘가에서 복식을 장만하는 주체는 유희춘과 송덕봉이었다. 일반적인 복식은 부인인 송덕봉이 장만하였으며, 관복에 소용되는 사모, 대, 갓, 신발 등은 유희춘이 주체가 되어 장만하였다.

둘째, 유희춘가에서 복식을 장만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부인이나 첩, 딸, 여종 등이 직접 제작하여 장만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구매나 대여를 통해서도 장만하였으며, 임금이 내려주는 하사품과 주변사람들이 보내오는 선물로도 의생활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였다.

셋째, 유희춘가에서는 복식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었으나 빨래, 염색, 다리미 등을 이용한 손질 방법과 보자기나 각 등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복식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투고일 2012. 11. 5.

수정일 2012. 11. 15.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유희춘(Ryu, Hee-chun), 송덕봉(Song, Deok-bong), 『미암일기』(*Miam Diary*), 복식 장만(Preparing of Costumes), 복식 관리(managing of Costumes)

